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編輯人 林 連 學
印 刷 人 張 玉 煥
編輯局長 田 根 澤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大山빌딩 3층)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지면안내

⊙ 국산삼두, 창출아니다 ……2면
⊙ 시세 동향 ……4면
⊙ 신임이사 프로필 ……5면
⊙ 알고먹으면 좋다 (봄나물의 효능) ……6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테마기행

"약초캐기 나들이 가자"

약용식물생태 관찰 기회

우리생약살리기 차원

◇약초캐기 행사가 오늘 28일 열린다.(사진은 지난해 행사 장면)

봄을 맞은 산천에는 당귀, 음양곽, 삽주뿌리, 산더덕 등 생약초를 비롯 참나물, 두릅, 곤드레, 취나물 등 봄나물이 지천이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는 오는 28일 봄냄새 물씬 나는 자연속으로 약초캐기 나들이를 떠난다.

경기도 연천군 소재 보개산 대광골에서 생산농민과 소비자가 함께하게 될 약초캐기 나들이는 상큼한 봄을 만끽하고 우리 생약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우리생약살리기 차원서 마련된 것.

보개산 일대는 산나물을 포함국내 자생되는무공해 청정약초 2백여종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으며 계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이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어 자연의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행사참가자들은 현지 생산농민과 참가자들이 한 조를 이뤄 약초를 채취하기 때문에 약초를 잘 모르는 일반 소비자들도 이번 기회에 우리 땅에서 자라는 각종 약용식물을 관찰하고, 전문가의 현장강의를 통해 약초의 약리작용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참가자들이 채취한 산나물과 약초는 현장에서 쌈 또는 산채로 맛볼 수 있음은 물론 집에 가져가 신선한 봄식탁을 마련할 수 있다.

약초캐기 나들이 참가인원은 선착순 1백50명한정이며, 참가비는 기념품, 중식, 간식(생약떡), 차량료를 포함해 1인당 2만원이다. 출발장소는 제기동 미도파백화점 광장에서 상오 9시 출발, 참가자들은 약초채취를 위한 간단한 도구(손괭이 등)를 준비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약협회 사무국(☎967-8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정희 기자〉

지황 백출 완전개방 될까

양부처 협의후 결정통보키로

수급조절품목으로 묶여 있는 지황 백출 창출에 대한 완전개방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8차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에서는 지황 백출 창출의 완전개방안을 놓고 각 단체간 협의가 이뤄졌으며 최종결정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양부처로 일임된 상태다.

이는 대한한약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등이 국내 생산량이 극히 미미한 품목으로 지황 백출 창출의 전면개방을 요청한데 따른 것.

이들 소비단체 자료에 의하면 지황, 백출, 창출은 국내 재배면적이 극히 협소해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족하다고 완전개방한다면 국내 생산기반의 초토화는 물론 생약자원의 절대적 수입의존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3면에 계속〉

한방병의원 규격품사용 의무조항 사실상 백지화

한방병의원의 규격품사용 의무화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규격화시행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불이익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방병의원이 한약재 소비의 70~80%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 산 약재의 기존판로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한방의료기관도 규격 한약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수입개방화와 함께 밀수품까지 공공연히 뒷천거래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방의료기관 까지 규격품사용을 의무화할 경우 원가상승은 물론 생산농가의 판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한약재 규격화에 대해 『제도시행 이후 한약재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약재의 질을 떨어뜨리고 원가상승만 부채질했다는 불만이 만만치 않은데다 『당초 목적인 품질규격이 선행되지 않는한 한방병의원의 규격품사용 의무화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따라서 이번 한방병의원의 규격품사용 의무조항 삭제 움직임은 생산농민과 소비단체인 한방의료기관측에서는 퍽 다행스럽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눈치다.

반면 약사회등 관련단체들은 한방병의원을 제외한 일방적인 규격품사용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다.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및 채취 행사"

맑은 자연속에서 여가도 즐기고 무공해 산약초도 채취하는
이번 행사에 소비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 소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보개산
일 시 : 1997년 5월 28일(수요일)
채취약초 : 당귀, 산더덕, 잔대(제리), 두릅(독활), 산마(생산약),
산도라지(길경), 삽주싹 및 뿌리(백출), 취나무, 곤드레 등
참 가 비 : 2만원(중식, 교통비, 기념품비 포함)
출발장소 : 미도파 청량리점 광장(1호선 제기역)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967-8133으로 연락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